

◆도시민인시리즈(完)◆ 소설 市邊風景

빠가편편한 주먹으로 갈라가 으르렁거는 건물바닥을 밟아 나 실하게 자란 화채단자 산나루의 거두티티한 발그림자 아래 쓸쓸 소리가 몇가득 들려온다. 가로등도 없고 인구의 불빛도 희미하게 먼 발두머지자 울퉁불퉁 길, 그 후미진 구석에서 아랫도리를 추스리며 검은 머리 돌이 일어선다. 어둠 속에서 넓게 벌어진 파발은 심심한 숨을 쉰다.

“오미 선한거, 순대 채우기도 힘들고 순대 찜고 복잡하네.” “원 사람도. 이제 어찌될까 정국아, 나는 아주 자고새면 걱정이야. 괜히 별 걱정 없네 그리고 지방 호근아저씨 일도 못하구 치르며 들어오니 여기까지 왔어. 내게 이제와 어디나 살 수도 없잖아. 애들두 걱정이지.”

“아유 맨날 걱정보따리야. 난 아무 생각없게 뒀으니가 말만야. 갈아먹기만 했 조구살아야지. 내게 갈 때가 없는데 어떻게 죽일꺼야? 애아저씨없이 남매 기르는데 힘들고 한스러워요. 힘도 부치고, 그래도 기본까지는 갈라야하네.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다 저 알서 살아가지. 그것들도 걱정인걸요. 평평한 것들이 공부도 실패할구 자꾸 학교도 빼먹어서 아주 간담간담하네. 제발 졸업만하라고 빌고 산다니까요. 호근 이걸이 공부로 잘하고 인물이 깨끗하면 좋겠네. 애미 님이서 통통하구 명칭해. 아 그라 저러나 빈 방들이 문제야. 순도작을들 살 집있고 그걸 살방있는 놈들이 사서 푼 잠가놓고 있네. 진짜 딱지탈라고 별 짓을 다하는 것들이야. 그것들때문에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욕먹잖우. 여기에 딱지가 나올래나?”

“그 광채화사에서 지은 집 팔아먹을라구 자꾸 소문을 낸다니까. 딱지나온다구. 그놈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아. 우리두 그냥 주저앉아 사는 주제에.”

“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처럼 주인이 모여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대책 세워야하네. 우리 세번째 철거당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잘하던 양반이 앞장을 서야할텐데.”

“그러다 뽕처럼 투기꾼 광채한테 정장사 시켜주면 어떨까.” “한진 선하게 앞장선 사람은 염문도 없이 철거당하고 욕먹는 염문도 없지. 사람은 없는 주민들 뽕처럼 먹고 도망가고. 애유 열받아.”

두 여인의 한숨이 내뿜진 집터의 낙망한 그늘로 짙게 떨어진다. 발이랑 끝 비닐하우스 밑에서 흐른 하수가 전복한 수채를 끌고 녹죽한 고랑을 끌고. 그리 빠르나 웅덩이로 탁한 거품이 바닷물에 비쳐있다. 그 위엔 판자집이 몇몇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오만한 가족들의 아웅대는 소리가 판자에 여파되어 부드럽게 배넌 골목으로 배어 나온다.

호근은 일 끝나가고 가로누운 아버지의 등이 아늑한 아산같은 골목골목에 고고 있는 것을 본다. 그 어둠 그늘을 출렁 넘어 ~돌아올줄 모르나~ 하는 라디오의 휘어 돌아드는 가요가 흐른다.

그 위로선 산성비 굴뚝에 젖어 펄펄 끓어 무성하게 마른 천정 가생이. 그 옆 벽엔 얼룩의 삭아내릴 듯한 집안 치마가 늘어지게 걸려있다. 칸 막아 소위 호근의 방이던 곳에 기방을 내려놓고 불을 켜 보려는 거울을 더듬어 흐릿한 얼굴을 비추어본다. 다라쉬만 얼룩처럼 빛나는 눈이 맘에 들지 않는다. 호근은 양 손가락을 세워 머리를 뒤로 몇번 긁어본다. 배가 고프다.

가방엔 두어백원짜리 디디면 이틀여 부어있다. 좁다는 표현만 으론 모자른 투쟁같은 것이다. 거기 때달린 천반원의 라면 박스에 손을 넣어 더듬어 보지만 빈었다. 자고있는 것진지 비닐의 일그러진 틈을 들고 그놈이 들어오는 것진지 호근아버지는 가요를 청조감고 끔찍이 있다. 그러는 창문으로 외가 나기 싫었다. 꼭 부모를 향해서는 아니나 대개 그쪽에 눈썹이 간다. 호근의 입술이 찡그려진다. 아예 씹어 삼키고 싶은 거다. 찬밥 남는 것이 서너줄 비닐 소쿠리를 뒤집어 쓰고 있다. 내친 김에 한 주먹 집어쥐고 소금통을 뒤져 주먹 여기저기 뿌려놓고 조미료를 뿌렸다. 냅다 한입 먹고 마는데,

원 세상에 먹고 산다는게 더럽다는 욕발들이 일어난다. 그대로 뛰어 나고 버렸다. 지겨운 비닐하우스 골목때기를 휘이 휘이 밀쳐내고 걸어 산언덕 배기로 올라갔다. 날씨가 온통 폐지에 자욱하여 눈이며 콧속이며 부딪혀 들어왔다. 얼굴을 내리 문지르고 주저앉을 곳을 찾았다.

“어, 형. 호근이형 왜일리아?” “정국이야 고만한 또래 몇명과 어울려 엉거주춤 자릴 잡으려다 수상쩍게 쳐다봤네.” “왜는 그냥 앉지. 뭐해.”

다른 녀석들이 정국에게 더 위쪽을 가리키며 따라오라고 하며 허며 돌아다녔다. “어이 속스러.” “호근이형 배고파? 성질나? 그럼해 뽕가게 해줄 수 있는데 어때?”

정국이 두손을 입에 갖다대고 몇번씩 푸파대며 거친 숨을 내쉬고 쟁쟁 거린다. “형 같이 할래? 뽕드.” “네 이리저리 이거 웃기는 자식 이네 난 그러려 안했어. 거 애덜 참. 난 안 마셔도 항상 간 상해야. 이강 노드 세상 집사나 학교서나 길에서나 계속 이러만 들리는데 그것까지 힘들며 마셔야야 마더덜 될 줄도 없는 몸이단마. 내가 너 말리는거 아냐나. 난 다 귀찮다. 잠이나 꿀어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꿀어야 자겠으면 좋겠다.”

정국의 여드름은 나이에 걸맞은 굵은 주름새에 끼여 열을 내고 종일 서부림대며 뽕색의 입이 또 선 소릴 해낸다. “형 지금 죽고살려는가? 죽음보다 깊은 잠인가? 카. 그럴수록 마셔봐. 이거 마시고 가버리는 새끼들도 있대잖아. 어때?”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할아! 난 뽕이 본드고 까스고 그런건 필요없어. 그거 없어도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도 있어. 알람야?”

“어유 저 처. 앞면 남 가슴 깊을 썩어 스텔스카 풀린단 말이야. 올 엄마 팔대루 스텔스카 이야. 심으면 관둬. 형은 이 무허가촌에서 안어울리게 독고 다 이루 너무 좀더 잘는게 갈래. 올 엄마랑 형 엄마랑 친하니까 그러지. 또 형이 우리 누나 좋아하니까 그러지. 우리 누나 성질이 별난 풀 안볼라그러지 아냐?”

“하이 저새끼. 누가 누나 좋아하냐. 남은 돈가스를. 까 불지나 나무 오를 기분 좀 더럽다.”

정국이 머리를 털어내고 넘기며 툭툭 실실하다 경중 피어올라 가는 모습에 찌마른 입안을 뽕개 한다. 번번이 허물을 벗어낸다는 흥물이며, 한결은 먹지도 않고 언제 잠을 잔다는 뽕색이 부러워졌다. 구지러하고 욕나오고 개같은 나발을 뽕개하고 싶고 수시로 자락배는 온갖 식물의 유혹들도 잘라내고 싶었다. 몸집이 커지자니 언제나 배속이 찢판느낌을 가지지 못했었다. 뽕만이나라 그만한 전들과의 방과후 친교를 잊는 음식점문화에 질 수 없는 소외의 배고픔.

그러나 스스로 1년반만 기다리자는 입속의 웅얼거림은 하루하루는 잊는 주문과 같이 있었다. 멀리 정선의의 창바지와 빨갛게 흔들리는 비닐집앞에 호근엄마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이고 환혼을 받으며 내려갔다.

하늘이랑 땅이랑 맞닿아서 달달 맷돌질하듯 할썩 썩을 세상이라고 하면 내내도, 큰일을 당했다. 큰집, 작은집이 변변찮은 살림과 사들한 주변부터로써는 매일 인원이야. 교외의 남의 땅 빌려 농사지던 것이 지난해 신도시개발로 지정되어버린 집이다. 임차농 신도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카라도 갈아먹을 땅때가 한평있고 한강산 발을 내리 내리는 처지에 생업을 잃게 생겼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 농사라고 여름 말전까지 출루 수확을 합참해가다리는데 홍수가 났다. 9월 대홍수가 쏟아지니 푸르누리한 벌판을 빨바리로 만들고 큰덕의

목은 살림도 파월은 짐짜짜며 모두 쓸어버렸다. 호근네도 아버지치료가 깊어지고 일은 내가야하며 철거위험도 앞둔 파박한 상태였다. 또 내리퍼는 홍수나년에 무린 비닐집도 견디기 수월찮아 지붕 단도리하고 고랑 파내고 잔손질이 계속 들어가 바빠. 그라 비우고 몇일 후에야 호근 어머니는 호근 아버지가 일차 들려보고는 심한한 애가를 줄거리로 고무장갑에 허절절거리며 주어진다고 집을 나섰었다.

“버스를 잡아타고 막 뽕구석치 자리를 잡아앉아 가는 길인데.” “이건 뭐 투기질이야. 투기. 저기 비닐하우스촌. 이라는데말야. 호근우 호근이 집잖우. 거기에 칸을 막아서 몇개씩 방을 만들었다는데 들어가 보면 아주 호텔방이랑같다. 또 빈집도 많은데 사람 사는듯이 고장난 TV며 고를 집에 한이불같은 걸 채워둔

데크구멍같은 내 눈까장 마구 들어가게 시상이 빈하네. 시상 빈덕지게 국위선양 올림피아디 뽕다하가며 걸 뽕하고 거리 고금으로 다 치장했잖우. 근디 없는 사람은 그말다치고 올 앞전에만 하도 보시서. 베키야 매고 구두 먼지나 닦을 양반들네도 TV에 나와서 내집 한칸 장만 못하는 현실이 비참하고하네. 나야 저정도루 편히 벌이하면 세상 아무 불만없을 것 같으니 세방살이 애들고 이사가지 짐장정하 하다고 하는거봉게 뽕가 사장이 답답시럽게 우리네 일만은 아니구나 허구요. 시상살이 계속 더 팝팝 시라시러구나 또 뽕가 잘못되도 꽤나 잘못되서 이러는구나 허지 드라구요. 너도 뽕맛에서 이 나라 뽕을 다 쳐고있는게 문제다 이거유. 그러서 그 뽕금 올리고 싶으면 투기조작하라고. 다 TV서 얘기했잖나 뽕는 야고요. 그러구요. 농사지을 땅대기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들어찬 사는게 정상은 아니지. 이게 워낙이 정지에 문제가 있음게 그러거 아니겠어요. 옛부터 그렇게 있었지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1〉좌담...도시민민에 대한 이해를위하여
〈2〉도시민민 계층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3〉도시민민 투쟁사
〈4〉프로...빈민촌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5〉빈민운동의 현 과제와 향후 발전전망
〈6〉소설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



“누가 죽는데. 자식 생사람 죽 일러그러네. 난 죽고싶지않아. 하지만 이렇게 살긴 싫다거야.”